주 간 기 도 정 보

2025. 7. 1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북한교회 회복 함께 준비"…한국교회, 통일 후 선교 전략 논의

한국세계선교협의회-한교총, 북한 선교 전략 간담회 개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계가 통일 이후 북한 교회 재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북한 선교는 교단주의를 넘어 연합과 협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9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통일 이후 북한 선교 전략'을 논의했다.

KWMA는 이날 간담회에서 '통일 한국 이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7원칙(안)'을 제시했다. ▲지하교회의 선도적 역할 인정 ▲한국교회의 섬김적 자세 ▲교단 간 협력과 통합 모델 마련 ▲교단주의 지양과 역사 기반 정책 수립 ▲선교적 확장 기회 창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세계선교 협력 ▲본질 중심의 교회 회복 지향 등이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는 지금 해야 한다"며 "통일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한국교회가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반응하려면 지금부터 공감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교회 회복 7원칙'은 지하교회를 회복의 주체로 세우고 남한교회는 조력자의 자세로 섬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단 중심이 아닌 해방 전 교회 역사와 분포를 기준으로 회복 전략을 수립하고 교단 간 연합된 선교 모델을 지향한다.

이 과정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세계선교 확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회복이 핵심이다. 강 사무총장은 "북한 교회 재건은 교단간 이해관계를 초월해 교단, 교회 이름이 아닌 복음의 이름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KWMA 법인이사장 주승중 주안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며 그날을 위해 지금 우리는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교회 회복은 단순한 물리적 재건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며 이 7원칙은 그 여정을 시작하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혁 한교총 대표회장은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을 나눠 효율적으로 선교한 사례가 있다"며 "통일 이후 특정 지역에 교단과 단체 사역이 과밀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감 감독회장도 "북한 선교 정책을 만들고 통일 이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심도 깊은 의논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 "교단들이 경쟁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동역할 수 있는 사전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찬곤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장은 “북한 선교를 위한 교단 간 연합 논의가 현실화된 것은 통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라며 “교단별로 북한교회 회복 위원회를 세우고, 하나의 주축 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교단에서 실행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7원칙에 대한 공동 수용을 선언적으로 채택했다 (출처: 국민일보, 데일리굿뉴스 종합).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12,16)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에스겔 36:34-35)

하나님, 한민족이었던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되어가는 이때, 한국교회가 통일 이후를 바라보며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황폐한 북녘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과 구원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눈 들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한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순종하여 북한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반도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온 열방에 주의 구원과 주의 도를 전파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북한, 화학무기를 전략 자산으로 격상하고 확대 양산
위성 감시 피해 우라늄 공장 야간 가동·폐수 방류 정황 포착

북한이 화학무기를 핵무기와 함께 전략무기로 격상시키고, 전면전 대비용 실전 무기로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데일리NK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화학무기를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간주하고 연구개발은 물론 양산 체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화학무기는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면전 대비 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핵을 쓰기 전, 적의 지휘부와 핵심 군사시설을 먼저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무기라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에 더해 화학무기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화학무기를 보유하는 자체로 전쟁이 나기 전 상대를 압박하고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화학무기 관리·운용 시스템도 갖췄다고 한다.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핵·화학방어국은 전국 7개 화학무기 여단을 관리하며, 공격과 방호, 제독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여름과 겨울에는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실전 훈련을 실시, 일부 훈련에서는 실제 화학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훈련에 쓴 방독면과 방호복은 훈련이 끝나면 소각하는 등 보안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작전계획에는 전쟁 개시 48시간 전, 남측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선제 투입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으며, 청와대, 전방 지휘소, 비행장 등 핵심 군사시설에 화학탄을 탑재한 미사일·포탄을 활용한 정밀타격이 주요 전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미 화학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실어 쏘는 실험까지 끝냈다”면서 “향후 일부 전연(전방)부대에 화학무기를 실전 배치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연구개발, 검수, 운용 체계는 철저히 분리되고 전문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당의 지도 하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화학무기 생산 및 저장 시설은 고지대에 분산돼 있고, 대부분 비료·농약·의약품 공장으로 위장돼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조용하고 치명적인 화학무기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부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협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를 지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가 하류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위성 감시에 대응해 공장 작업을 야간에 진행한다거나 폐수 및 오염물도 야간에 방류하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평산 공장 인근 농장의 가축들이 집단 폐사했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 역시 우물에서 냄새가 나고 수질이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보위부가 나서서 이 같은 여론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주민들을 강력 단속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2-1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이사야 55:3)

하나님, 핵 개발 활동과 대량 생산된 화학무기를 이용한 구체적인 군사 작전까지 계획한 북한의 혈과 육의 싸움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더욱 주를 바라봅니다. 군사적 도발을 넘어 남한과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으사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서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옵소서. 당국으로부터 소외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적을 베풀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소서. 또한 이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에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나홀로 집에 어린이'…교회가 돌봄의 안전망 역할을

'돌봄 사각' 어린이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은

인천 동구 화평동의 오래된 상가와 주택 사이에 '초등학생을 위해 운영된다'는 현수막이 붙은 라면집이 있다. 인천 길튼교회(채성렬 목사)가 운영하는 '은혜라면'이다. 라면은 기본이고 각종 간식과 음료, 어린이들이 즐길 게임과 활동이 제공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평일 오후 한 끼라도 해결하며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교회가 공간을 마련했다.

길튼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한 건 지난 2월, 교회 인근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방학 중 집에 홀로 있다가 화재로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채성렬 목사는 8일 "여전히 홀로 집을 지키는 초등학생이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취약계층을 섬기는 마음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쉼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법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독 방치에 관한 연령 규정이 없는 등 기준이나 처벌 조항이 모호하다. 그렇다고 마냥 법적 기준만 높일 경우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는 "교회는 아파트 상가 등 밀집시설 곳곳에 입주해 있는 데다 주일예배 등 특정 요일 외엔 공간이 비어 있는데 접근성이나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은퇴한 교사나 의사, 상담사 등 재능기부에 나설 인적 자원도 풍부한 만큼 충분히 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가 성금 등 일회성 지원에 머물기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송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 봉사에만 치중하지 않고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데 나서도록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장헌일 목사는 주간에 집중된 현행 돌봄 시스템 속 사각지대인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비용 부담으로 현행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현실도 고려했다. 장 목사는 "은퇴한 시니어 성도를 활용하거나 여러 교회가 야간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해 연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 목사는 "교회 이름보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선교적 교회로 교회가 복지 사각지대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은 공교회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돌봄 목회'에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하이패밀리 송 대표는 "성경 속 아브라함이 뙤약볕에 힘들어하는 낯선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듯 억지로 종교 행위를 강요하거나 전도하려 덤벼들기보다 먼저 환대의 정신으로 돌봄 사역을 바라봐야 한다"며 "환대를 통해 드러나는 교회의 향기에 사람들은 감동하는 만큼 사람들이 자연스레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시대에 맞는 전도 방식을 더욱 더 열린 마음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에베소서 5:1-2)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떪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고린도후서 7:15-16)

하나님, 부모의 맞벌이 등의 이유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순종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이 땅의 다음세대를 환대하고 아이들을 마음으로 섬겨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소서. 돌봄 사역을 통해 교회의 사랑을 받는 다음세대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로 자라나 이 땅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